

자기소개서

1.
“ 눈치 없는 게 어디 인간인가?!”

어려서부터 자영업하시는 부모님을 돕는 것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. 중학생때는 추운 날 치킨을 들고 배달을 가서 우연찮게 친구 얼굴을 보기도 했고, 대학생할 동안은 슈퍼마켓의 정리하는 일을 도 맡아 하였습니다. 그 일은 힘들고 짜증이 났습니다. 하지만 힘든일에도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고객을 편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

2.
"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프로그래머"

고등학교때부터 독서를 하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. 대학교때부터 배운 프로그래밍은 언어로 생각해서 표현한다는 것에서 글을 쓰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. 프로그래밍은 생각과 철학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글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배운 프로그래밍으로는 제 생각을 모두 정리해서 담기엔 기본기가 부족함을 느꼈고, 휴학을 하고 비트교육센터에서 도구로써의 프로그래밍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3.
"리더보단 2 인자"

30 명이 전부인 신설과에서 과대표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모두를 이끌어 가지만 유연하면서도 협동적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대체전 및 리그 등을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공부에서도 경쟁보다는 다 같이 스터딩을 하면서 지냈습니다. 그 후 군대에서도 남들보다 높은 계급에서 배려와 소통으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, 제 할 일은 책임감있게 하는 성격이라 친구들과 부드럽게 잘 지냅니다.

4.
"주인의식"

라면을 정말 잘 끓이는 종업원이 가게를 차려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장의 마음이 없어서라고 하십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강조하신 이야기입니다. 일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‘ 나의 일’ 혹은 ‘ 우리의 일’ 이라 생각하면 애사심이 생기고 매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. 저 역시 입사를 하는 순간부터 주인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노력하는 인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.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서 회사와 함께 발전해 나아가겠습니다.